

1972~1985년 『전북일보』의 국악 기사 (I)

장서영 외 12인¹⁾

신문 기사 검색은 근현대 연구 방법의 하나로, 기록이라는 실증적 증거에 기반하여 해당 시기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사회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사의 논조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알 수 있다.

본 자료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2026년 1학기 “이론작곡세미나”²⁾ 수업에서 진행하였던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전주 지역에서 간행되는 『전북일보』³⁾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1972년부터 1985년까지 국악 기사를 검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1970~80년대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의 국악 문화 흐름을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은 연도 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전북일보』 원본 편철을 활용, 국악 기사를 조사하고, 원본 사진 삽입, 기사 제목 기록, 기사 내용 요약의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기사의 분량이 많아, 1972년~1977년, 1978년~1980년, 1981년~1985년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게재하고자 한다.

1)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이론, 예술경영, 작곡 전공 학부생: 고준휘(이론 26학번), 백서윤(이론 26학번), 이재민(이론 26학번), 김민서(예술경영 25학번), 박준희(예술경영 25학번), 김다빈(예술경영 24학번), 박고은(예술경영 24학번), 송준석(예술경영 24학번), 심대율(예술경영 23학번), 장서영(이론 23학번), 조영준(작곡 23학번), 조진모(작곡 22학번), 안세희(예술경영 21학번)

2) “이론작곡세미나” 수업은 학부 이론, 예술경영, 작곡 전공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과목으로, 논문 읽기, 주제 발표, 공연 기획 등 이론, 예술경영, 작곡 전공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이다. 현재 작곡 강사와 이론 교수가 공동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과제는 이론 전공 신은주 교수의 지도 하에 이루어진 작업이다.

3) 『전북일보』는 전북일보사에서 『전북신보』라는 제호로 1904년에 창간한 신문이다. 해방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명칭 변화를 거친 후 1950년 다시 『전북일보』로 제호를 바꾸었고, 1973년 『전북매일신문』, 『호남일보』와 통합하여 『전북신문』으로 발족했다. 1983년 6월 1일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제호를 『전북일보』로 바꾸고 발간을 지속하고 있다.

1972년 『전북일보』 국악기사

조영준(작곡 23), 백서윤(이론 26), 이채민(이론 26)

월일	기사제목
1.16	「국악의 향기」에 취한 젊음들
1.19	가야금 韓玉出(한옥출) 여사
1.19	唱樂(창악)의 거인 박동진 씨
2.9	멋있는 風流性(풍류성) 깃든 多彩(다채)로운 「판소리」 「庶民精神(서민정신)」이 소박하게 躍動(약동)하는 예술
2.13	향토음조에, 희노애락 감정의 극치 판소리 발전은 한국민속에 큰 공헌
3.1	다시 동호인에 넘어간 국악협회
3.26	比斯伐 子丰(비사벌 자풍)-전라도와 민요
3.29	國唱(국창) 金演洙(김연수)씨의 후계자 吳貞淑(오정숙) 판소리 連唱(연창) 성황
5.20	舊正(구정) 보름놀이 63種(종)
8.20	나의 遍歷(편력)-女流國唱(여류국창) 金素姬(김소희)씨와의 대화
8.27	나의 遍歷(편력)-국악 申快童(신쾌동)씨와의 대화
9.3	세계에 우리 농악 심자
9.3	北赤(북적)이 보여준 평양
9.15	옛 노래에 눈지그시 郭圭錫(곽규석) 쇼엔 暴笑(폭소)도
9.20	전국민예품전서 商工長官賞(상공장관상) 수상 薛在洙(백재수) 씨 고유 민속악기 등 출품
9.27	10월 3일 금마서 마한민속제
9.29	옛을 깨는 사람들-판소리 연구 洪顯植(홍현식) 교수

1972년 『전북일보』의 국악 관련 기사는 총 17건이다.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과 전통 문화 보존이라는 담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이 시기 보도는 판소리와 민요의 역사성을 규명한 연재 시리즈 「국악 속의 전라남북도」를 필두로 박동진·오정숙·김소희 등 당대 명창들과 거문고 인간문화재 신쾌동, 전북대 홍현식 교수 등의 예술적 생애를 조명한 기획 인터뷰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 전북농악보존회 설립과 국악협회 전북지부의 내홍 등 지역 국악계의 현안이 입체적으로 수록되었다. 특히 명인들의 전승 활동과 음악적 성취를 다룬 연재 기사의 지속적인 게재는 당대 전북 지역 언론이 전통예술의 기능 보존에 지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언론은 남한 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과 지역 국악원의 완창 공연 등 굵직한 문화적 이벤트를 중심축으로 다루는 한편, 전래 곡조의 원형 수집 필요성이나 남자 창 의 단절 우려와 같은 전승 현장의 위기 요소를 가감 없이 보도하였다. 이는 당시 『전북일보』의 국악 보도가 일회성 행사의 단순 중계를 넘어, 전북 국악계가 직면한 전승학적 과제를 지역 사회에 공론화하려는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1972년 당시 전북 지역의 국악 관련 보도는 국악을 단순한 소비성 공연 예술로 국한하지 않고 전통음악의 원형 수집과 지역 국악인의 활동 기록을 통한 문화 보존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이는 지역신문이 국악 문화의 일차적인 기록 매체이자 지역 고유의 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견인하는 핵심적인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1972년 1월 16일

「국악의 향기」에 취한 젊음들

1965년 서울에서 대학생 5명으로 시작된 국악 모임 '금우회'

과거 국악을 천시하던 사회적 편견에 맞서 우리 음악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

서구 문명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1월 15일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공연.



1972년 1월 19일

가야금 韓玉出(한옥출) 여사

주부로선 집념 강해야 / 정서생활을 실천으로 보여줘

전주 사는 39세 한옥출 여사, 바쁜 가사 노동 중에도 집념을 갖고 가야금을 배우며 주부의 정서 생활을 몸소 실천함. 엄마 영향으로 큰딸은 이화여고 피아노 특기장학생, 작은딸은 전국 대회 싹쓸이한 가야금 천재로 자람. 자면서도 가야금 줄이 생각날 만큼 독하게 노력했으며, 자식 잘 키워낸 최고의 어머니로 주변의 칭송을 받음.



1972년 1월 19일

唱樂(창악)의 거인 박동진 씨

충남 공주 출생, 당시 56세.

19세 때 고 김창환 씨에게 심청가를 배움. 흥보가(5시간 30분), 춘향가(8시간), 심청가(6시간), 적벽가(6시간), 수궁가(4시간) 완창 기록 보유.

현재 10시간짜리 완창 작품 '충무공' 작곡 중. 한양대에 출강하여 제자 15명 양성 중. 전주에 국악 전문학교 설립 필요성 강조.



1972년 2월 9일

민속-지춘상

멋있는 風流性(풍류성) 깃든 多彩(다채)로운 「관소리」

「庶民精神(서민정신)」이 소박하게 躍動(약동)하는 예술

전라남북도 국악을 다룬 연재물 중 제11회차 기사.

호남 지방의 민속예술은 풍류성과 소박한 서민정신이 약동하는 특징을 가짐. 고싸움놀이, 줄다리기 등 호남의 대표적 민속놀이와 그 토속성, 역사성을 학술적으로 서술함.



1972년 2월 13일

음악-이보형

향토음조에, 회노애락 감정의 극치
판소리 발전은 한국민속에 큰 공헌



연재물 중 제13회차 기사. 전라도는 판소리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명창을 배출한 곳임. 전라도 향토 음조(가락)가 인간의 회노애락 감정을 극치로 표현함. 시나위 가락, 남도민요 등의 음악적 특징과 판소리가 한국 서민문학·음악 발전에 기여한 바를 기술함.

1972년 3월 1일

다시 동호인에 넘어간 국악협회

국악협회 전북지부 임원 개편 선거가 열림. 실기인(전문 국악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호인 출신 성도선 씨가 지부장으로 당선됨.

회의장에서 고성방가와 야유가 일어났으며, 실기인들은 "장고 좀 친다고 회원 될 수 있나"라며 회원 자격 재고를 주장함.



1972년 3월 26일

比斯伐 子丰(비사벌 자풍) - 전라도와 민요

연재물 중 제8회차 기사. 전라도 지역 구전 민요의 토속성과 역사성을 다룸.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봉준 장군과 관련된 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의 가사와 유래 수록.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술에서 유래하여 남해안 일대에 퍼진 '강강수월래'의 노랫말과 배경 수록.



1972년 3월 29일

國唱(국창) 金演洙(김연수) 씨의 후계자

吳貞淑(오정숙) 판소리 連唱(연창) 성황

시민문화관서 장장 5시간반

전주국악원 주최로 전주 시민문화관에서 오정숙 씨(당시 38세)의 판소리 완창 공연이 열림. 낮 1시, 밤 8시 두 차례에 걸쳐 춘향가와 흥보가를 총 5시간 30분 동안 연창함.

국창 김연수 선생의 짜임새 있는 창법을 체득했다는 평론가 홍현식의 단평 수록. 유대봉(가야금), 서용석(대금) 등이 동참함.



1972년 5월 20일

舊正(구정) 보름놀이는 63種(종)



보름놀이: 민속학자 지춘상 교수의 연구 발표. 구정 보름놀이는 총 63종이며, 행사 원류는 삼한 시대 마한 때부터 비롯됨. 주류는 매굿(농악), 별신굿, 당산제 등 축제성 부락제가 특징임.

동래부순절도: 숙종 35년(1709년) 변박이 그린 그림의 원본 발견.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 모습을 담았으며 고동, 북, 징 등을 배치한 군악 복식과 형태가 묘사되어 있음.

1972년 8월 20일

나의 遍歷(편력)

女流國唱(여류국창) 金素姬(김소희) 씨와의 대화



김소희 씨는 16세 때 춘향가 음반을 취입하고 구미 지역을 순회하며 국악을 소개했으며 해방 후 여성국악동호회를 조직하고 오선보를 활용한 최초의 독창회를 개최하는 등 평생 판소리 보존과 후학 양성에 힘썼음이 명시됨.

1972년 8월 27일

나의 遍歷(편력)

국악 申快童(신쾌동) 씨와의 대화



거문고 명인 익산 출신의 신쾌동 씨는 인간문화재(국악 거문고)로 지정된 인물.

9세 때부터 음악의 율을 익히기 시작했으며, 22세에 당대 국창급 소리꾼들과 함께 축음기 음반(레코드)을 취입함. 전통 기악 65종 중에서 거문고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기라고 설명하며, 거문고 소리만 듣고도 날씨를 점칠 수 있다는 일화를 소개.

국악고등학교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였고, 미국 뉴욕 공연을 포함한 국내외 연주 활동 사진과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지면에 수록됨.

1972년 9월 3일

北赤(북적)이 보여준 평양



평양 소년궁전에서 북한 소녀들이 나란히 앉아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대한민국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사진으로, 남측 대표단 일행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야금 병창을 연주하는 장면.

1972년 9월 3일

세계에 우리 농악 십자



전주농고 농악대가 70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사단법인 전북농악보존회가 탄생. 우리 농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힘. 미국 캘리포니아 등 해외 공연을 앞두고 전북 농악의 우수성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국악협회나 예총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북 고유의 신명 나는 농악 문화를 세계 무대에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1972년 9월 15일

옛 노래에 눈지그시

郭圭錫(곽규석) 쇼엔 暴笑(폭소)도



만찬회장에서 남한 예술단(예그린합창단 등)이 민요 합창, 가야금 병창, 아악 '수제천' 연주, 부채춤과 북춤 같은 화려한 전통 국악 공연을 선보임. 원로 코미디언 곽규석 씨의 재치 있는 사회와 쇼 진행으로 무거운 만찬 분위기를 단숨에 깨뜨리며 큰 폭소를 자아냄. 전통 예술에 이어 패티김, 조영남, 리나박 등 당시 최고 인기 가수들의 대중가요 무대까지 이어지며 남북 간의 긴장을 녹이는 성공적인 공연을 펼침.

1972년 9월 20일

전국민예품전서 商工長官賞(상공장관상) 수상

薛在洙(벽재수) 씨

고유 민속악기 등 출품



목공예 연구소 대표 벽재수 씨가 제2회 전국 관광민예품 경진대회에서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함. 가야금, 거문고, 해금, 북, 단소, 장고 등 전통 민속악기를 실제 크기의 10분의 1로 축소한 미니어처 작품 45점을 출품함. 토종 나무와 가죽을 사용해 가공했으며, 관광 기념품용 대량생산 계획을 밝힘.

1972년 9월 27일

10월 3일 금마서 마한민속제



10월 3일 익산 금마에서 군비 60만 원을 들여 서동·선화공주 행차와 궁중놀이 등 10개 종목의 마한민속제를 개최합니다.



1972년 9월 29일

“옛”을 캐는 사람들

판소리 研究(연구)

洪顯植(홍현식) 교수

전북대 홍현식 교수가 사라져가는 판소리, 토속신앙, 무가 등 전래 곡조의 원형 수집과 연구를 진행함. 전설적 명창 권삼득의 생애와 행적을 추적하여 고증함. 전라도가 소리의 고장임에도 현재 남자 판소리 수강생(남자창)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함.

1973년 『전북일보』 국악기사

김민서(예술경영 25)

월일	기사제목
1.7	갈채받은 원대순회공연
2.15	활발해진 국악기 현대화
2.17	리크레이션 공연성황
3.6	북춤, 길쌈놀이 등 절찬
4.10	전북서 단체상
4.28	국악이야기: 권삼득편
5.15	비사벌 예고서 단체상
5.22	국악과 한국무용 그 조화의 방향
6.5	각시풀놀이의 유래
6.5	풍남제
6.9	칭찬받는 어린이: 전주중앙 장지은
6.16	칭찬받는 어린이: 전주국교 손경조
6.26	선명합창단 전주공연
10.30	민속경연 문제점많다
11.1	이평중에 농악대 창설
11.3	호남벌에 펼쳐진 예술의 파노라마

11.8	무용의 밤도 상황
------	-----------

1973년 『전북일보』에 수록된 국악기사는 총 17건이다. 판소리명창 ‘권삼득’에 대한 특집기사가 눈에 띄며, 민속경연대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기사, 이평중 농악대에 창설에 대한 기사에서는 국악에 대한 전북 지역의 관심을 알 수 있다.

1973년 1월 7일

갈채받은 원대순회공연

전주끝내고 남원 이리로



이리원광대학교 무용, 음악 발표회가 25일 하오 2시 30분과 밤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되었다. 이 공연은 기성단체나 기성인들의 발표가 아닌, 학생들의 발표회로서 의미가 있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전주 공연을 마치고 26일 남원과 27일 이리에서 공연을 갖는다.

1973년 2월 15일

활발해진 국악기 현대화

국악기의 현대화 작업이 국립국악원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악기의 현대화란, 본질적인 특색을 지키고 음색이나 성량의 질을 높이자는 것으로, 김기수는 최근 합성섬유로 된 거문고와 가야금을 만들어 실험을 한 결과 재래의 가야금에 비해 약 2배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음색도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1973년 2월 17일

리크레이션 경연 상황

도경, 수곡오락 등 한때 웃음바다

경찰 공연단 리크레이션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서는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연극과 다양한 오락 공연이 진행되었다. 관객들은 공연을 보며 웃고 즐기며 큰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1973년 3월 6일

북춤, 길쌈놀이 등 절찬

리틀엔젤스 일본 순회공연 결산

한국 민속가무단이 일본에서 공연해 큰 호평을 받았다. 북춤과 길쌈놀이 등 한국 전통 민속공연이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일본 여러 지역에서 공연하며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소개, 한국 민속예술의 국제성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1973년 4월 10일

전북서 단체상

전북 지역 무용단과 학생들이 전국 무용제에 참가, 한국 전통 무용이 중심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소개되었다. 참가자들은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통무용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1973년 4월 28일

국악 이야기: 권삼득편

글방 마다하고 용소서 노래불러

집안에서 가문망신이라 죽일계획도

권삼득의 모친은 양반집 후손을 글공부를 시키려 했으나, 용소에서 지르는 소리가 동네까지 들려 항상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공들여 득음하고 전국에서 소리하였다. 가풍이 엄한 집안에서 그를 잡아와 꾸중하고 죽이려 했으나, 죽기 전 요청으로 부른 심청가 한 대목에 집안 사람들이 탄복하여 용서하자 하였다.



1973년 5월 15일

비사벌 예고서 단체상

아시아 국제 예술대회서

제5회 아시아 국제예술대회가 5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역 예술인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무용 작품 부문에서는 특금상과 단체상을 받았고, 가야금 산조 독주도 금과 대회장상을 수상하여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1973년 5월 22일

국악과 한국무용 그 조화의 방향

전통 탐구 이해 태도 함양을
민속이 대명사 될 수는 없어



국악은 민속예술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창작과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서울대 한만영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며 국악이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과 연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973년 6월 5일

각시풀놀이의 유래

국립국악원이 전통 민속놀이인 각시풀놀이를 현대적으로 공연화하여 우리 국악과 전통예술의 계승 및 대중화를 도모했다.



1973년 6월 5일

풍남제

창포에 머리감고 그네뛰는 단오절
덕진원두 15만인과 봄벼
민속가장행렬.. 전야제 들썩
행사만개 시민의 장 수여



풍남제는 단오절을 맞아 열린 전통 민속 축제이다. 행사에서는 창포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등 우리 전통 풍속을 재현했다. 특히 전야제와 민속 행사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운영되었다.

약 15만 명의 시민이 축제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1973년 6월 9일

칭찬받는 어린이: 전주중앙 장지은

무용에특기...장관상
침착하고 명랑 남도 잘도와
장래희망은 무용가



전주중앙초등학교 장지은 어린이가 제5회 아시아 국제예술대회에 참가하여 한국 무용 부문에서 바라춤을 선보여 최고상인 특감상을 수상하여 뛰어난 국악 무용 실력을 인정받았다

1973년 6월 16일

칭찬받는 어린이: 전주국교 손경조

가야금 잘해 특금상
글짓기에 입상, 여러차례
말씨 바르고 침착해



손경조 어린이는 10살부터 가야금을 배우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 제 5회 아시아 국제예술대회 가야금 부분에서 특금상을 수상하였다. 성실한 연습과 뛰어난 연주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악을 이끌어 갈 유망한 인재이다.

1973년 6월 26일

선명 합창단 전주공연

해외순회공연에서 인기를 차지하는
선명합창단



선명 합창단이 세계 20여 개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펼쳐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한국 민요와 합창곡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순회공연은 각국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성공적인 공연으로 평가되었다.

1973년 10월 30일

민속경연 문제점 많다

14회 전국 민속경연대회 결산
쇼적성격 아직도 건재
구태의연하고 소재한계 드러나
원형을 무시한 전주승무 냉담해
김종익옹의 개인상 수상은 보람



제14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회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1973년 11월 1일

이평중에 농악대 창설

국빈 학생 위주 진학의 꿈키워



한 중학교에서 학생 28명으로 농악대를 창설해 개막식에서 첫 공연을 선보였으며, 장구와 농악 연주 실력이 뛰어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농악대는 전문 지도자의 지도로 약 1개월간 합숙훈련을 했고, 각종 행사와 체육대회에서 공연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는 농악을 통해 학생들의 전통 문화 계승은 물론 농악 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목표로 했다.

1973년 11월 3일

호남별에 펼쳐진 예술의 파노라마

12회 전라예술제 이모저모

전북출신 가수들 특별출연

수작들만 나온 미협회원전

국악의 흥겨운 가락에 만장의 갈채



제12회 전라예술제는 공연, 전시회,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구성되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악 공연과 건축 전시가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 지역의 참여 부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다.

1973년 11월 8일

「무용의밤」도 성황

전라예술제 막내려



총화와 창조와 전진을 다짐한 제12회 전라예술제는 무용의 밤 공연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무용의밤」은 전주시민문화회관에서 제1부 가인전 목단, 산조 등 6개 작품과 제2부 야상곡, 고금상사 또하나의마음 등 한국무용, 현대무용 작품이 공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피날레 공연인 무당춤은 전통 무속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가장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1974년 『전북일보』 국악기사

심대율(예술경영 23)

월일	기사제목
1.24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1> - 민족예술은 민족혼의 쉼터
2.12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2> - 농도의 상징 농악
3.30	해학 넘치는 수궁가 완창
3.30	호남 판소리는 광대만의 것이 아니다
3.30	가야금 심취한 병사
4.13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3> - 노래 결들인 여인들 잔치
4.20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4> - 집단성 강한 농민 음악
4.20	활화산 3시서 공연
4.20	남원의 대사습놀이
5.4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5> - 농촌의 낭만적 생활묘사
5.11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6> - 농경생활의 정서윤퍼
6.15	식어가는 국악열
6.22	24일 풍남제에서 선보일 전주 기접놀이
6.29	국악은 언어와 같다
7.6	전북인맥
7.27	한길자매
8.10	가야금 강습회 성황

8.20	봉산탈춤 종합연구 완성
8.27	성심여고 단체 우승
9.27	노래,웅변등에 갈채 농악학교 어린이 예술제
10.15	두개의 동일민요 핸디캡 안고 참가
11.28	농악은 한국특유의 민속
12.3	향토특색 유감없이 발휘
12.7	무용 대공연 갈채속 폐막

1974년 전북일보에 실린 국악 관련 기사는 총 24건이다. 주요 기사로는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라는 제목의 캠페인 기사다. 이 시리즈는 총 6번에 걸쳐서 농악이나 민요, 여성들이 부르던 노래 등 옛날 농경 사회에서 즐기던 우리 음악을 자세히 소개했다. 식어가는 국악열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국악을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민족혼의 컴퓨터자 농도의 상징으로 격상시키며,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적 지원과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봉산탈춤 종합연구 완성」, 「국악은 언어와 같다」와 같은 기사는 국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 본질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북 지역에서 국악 공연이나 대회가 아주 활발하게 열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심여고 학생들이 국악 대회에서 단체로 우승했다거나, 전북 참가자들이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대회에서 향토의 특색을 살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기사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당시 전북 지역 학생들과 예술인들이 국악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국악을 배우려는 열기도 대단했다. 국악이 소수의 전문가들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학생, 군인, 일반 시민 누구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 같다.

결론적으로 1974년은 사람들이 우리 국악의 보존을 걱정하면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던 시기였다. 신문에서는 국악 보존 캠페인을 벌이고, 전북 지역의 국악인들과 취미로 국악을 배우는 사람들이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국악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을 조사하면서, 전북 지역이 왜 지금까지도 국악이 발전하고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1974년 1월 24일

민족예술은 민족혼의 샘터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

전북은 문화유산의 집약지

모방성 탈피해야

외래영향으로 관심서 소외

유산찾기에 당국 협조절실



전북은 예로부터 민속문화의 집약지로 많은 유산을 갖고 있으나 몇몇 인간문화재나 학자들에 의해 겨우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이를 계승보전을 위해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아쉽다. 전북은 문화예술의 집약지이지만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예술이 소외되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974년 2월 12일

농도의 상징 농악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

뛰어난 기예, 전승, 예술가치 풍부

한국의 대표급 당국의 능동적 지원책

절실

보존회까지 만들었으나 존폐위기, 작년 빚만 1백만원.. 갚을길 막연



국악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여, 본존회까지 만들었으나 빚만 생겨 갚을 길이 막연하다.

1974년 3월 30일

해학 넘치는 수궁가 완창

박동진씨 전주서 갈채속에 공연

풍부한 성량에 독특한 율격,

한번 터지면 대하같이 흘러



박동진 명창이 전주 시민문화회관에서 수궁가 완창 발표를 하였다는 내용

1974년 3월 30일

호남 판소리는 광대만의 것이 아니다.

생성,발전,개작에 사대부들도 간여

심재효본 심청전 재담을 강조



판소리는 광대만이 발전시킨 예술이 아닌 사대부들도 함께 발전시킨 예술이다.



1974년 3월 30일

가야금 심취한 병사

한복입고 교습도 우리말로

외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가야금과 국악을 공부하는 내용이다.



1974년 4월 13일

노래 결들인 여인들 잔치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
기와형태로 몸을 굽히고, 구절마다 [뽕새뽕새] 삽입
예술경연대회서 문공부 장관상 차지

제1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전복의 기와 뽕기라는 민요가 상을 탔다는 내용



1974년 4월 20일

집단성 강한 농민 음악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
백제 산유화가의 한갈래, 지계목발에 작대기 장단
예술경연서 문공부장관상, 이광오 교수 발굴

익산의 목발이라는 노래를 이광오 교수가 발굴 하였고 예술경연대회에서 문공부장관상을 받았다는 내용



1974년 4월 20일

활화산 3시서 공연

유신기념 예술형식에 담아 전달

국립극장의 전국 순회공연에 관한 내용으로 유신기념을 예술형식에 담아 시민들에게 심어주었다는 내용



1974년 4월 20일

남원의 대사습놀이

춘향국악제전에 부치는 글

춘향이라는 고귀한 정신적 자산을 바탕으로, 사라져가는 '대사습'의 전통을 되살려 "남원을 국악의 성지로 만들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 당시 국악을 보존하려 했던 지식인들의 뜨거운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글.

1974년 5월 4일

임실 들노래

농촌의 낭만적 생활묘사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
두패나눈 선후창이 특색, 흥돋우어
작업능률 올려
민속경연대회에 출연, 예총 회장상 차지



연계타령이 민족경연대회에서 예총 회장상을 차지하였고 이 노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함

1974년 5월 11일

익산농요

농경생활의 정서울어

잊혀지는 조상의 얼과 멋, 되찾고 보존하자
모심기, 김매기 등 순서로 [만두레]는 회소에 애상적
방아타령은 곡조특이, 작업완급 따라 좌우



전북 익산 금마 지역에서 고대부터 전승되어 온 '익산농요'의 유래와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사

1974년 6월 15일

식어가는 국악열

발상지인 전북에서 일반관심 멀어져
시립국악원 설립 시급
기능보유자엔 지방문화제라도 지정
전주 등 국악원 벌써 폐쇄 뜻있는 인사후원 절실
수련과정 험난, 생활보장 못 받아



국악의 본고장인 전북에서조차 일반인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전주 등지의 국악원들이 이미 폐쇄되었고, 국악인들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해 수련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

1974년 6월 22일

24일 풍남제에서 선보일

전주 기점놀이

잊혀있던 이 고장민속의 재발견
기퍼기, 기달리기로 승부가름
농민의 협동, 총화의 옛 모습 보여
용기등 신기의 비전자랑
전주 농고생 80여명 출연



전주 기점놀이가 제 16회 풍남제를 맞아 재발굴되어 지역 기예 보유자들과 전주 농학생 80명이 함께 참여하여 화려하고 역동적인 기점놀이를 재연했다는 내용

1974년 6월 29일

국악은 언어와 같다

국악을 이해 못하는 것은 가치교육을 받지 못해서
학교 교육서 철저해야
서울음대 한만영 교수 주장



국악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배우듯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국악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

1974년 7월 6일

전북인맥: 판소리 남원지방

우리조상의 얼.. 그 현장을 찾는다
송흥록을 정점으로 계보
고창의 신재효가 열두마당을 집대성
근대 가요의 선구자 미성 가희 이화중선
예술적 본질 백제의 문화정신
애정으로 꽃핀 판소리 인맥



남원과 고창을 중심으로 형성된 판소리 유파의 역사적 흐름을 다루며, 동편제와 서편제 전승 계보 추적. 송흥록을 동편제 유파의 정점으로 조명. 고창 출신 신재효가 판소리 사설을 문학적으로 집대성한 공로 강조. 판소리에 담긴 예술적 본질이 백제의 문화 정신과 민중의 애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분석. 이화중선 등의 활약상 소개.

1974년 7월 27일

한길자매

가야금, 거문고, 아쟁, 양금 등

정악서 속악까지 프로급 / 모두 모이면 국악 오케스트라

딸 다섯모두가 국악 익혀



전주 비사벌 예술학교 변영자를 비롯한 다섯 자매가 모두 가야금을 비롯한 전통 음악을 전공하며 '한길'을 걷고 있는 이색적인 사연을 소개

1974년 8월 10일

가야금 강습회 성황

15일까지 35명 부녀자 참석



전북신문과 전북여성회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야금 강습회에 총 35명의 부녀자가 참석하여 15일까지 성황리에 진행.

여성의 정서 순화와 전통 고유 음악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주 비사벌예술학교의 변영자교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호응을 얻었다는 내용

1974년 8월 20일

봉산탈춤 종합연구 완성

대사 음악 춤 등으로 분류

즉흥적 연행특질 기록화 애먹어

연극의 반주패턴만 채보 / 김의경, 김대현, 김백봉 교수 집필



문교부의 지원을 받아 연극(김의경), 무용(김백봉), 음악(김대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한 「봉산탈춤 종합연구」가 완성되었다는 학술적 성과를 다루고 있는 내용

1974년 8월 27일

성심여고 단체 우승

광복절 기념 전국무용 경연

대회 세부 종목으로 배정된 한국무용 독무부문에 해당 학교의 김은희 학생이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고

제29회 광복절 기념 전국 무용 경연대회에서 전주 성심여고가 종합 우승(단체 특상)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무용 종목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거두었다는 내용



1974년 9월 27일

노래, 웅변 등에 갈채

농아학교 어린이 예술제



이리에 위치한 전북농아학교 학생 42명이 전주시민회관에서 다채로운 종목을 선보이는 어린이 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청각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합창과 무용뿐만 아니라 농악과 가야금 합주까지 선보였다는 내용

1974년 10월 15일

두개의 동일민요 핸드캡 안고 참가



15회 전국민속경연 참가 전북팀 현황을 알아본다
전국민요경연참가 10일을 앞둔 옥구들 노래 연습광경
옥구들 노래...생산성있는 자립 정신
풍년 맞는 소박한 농촌 풍경...태인 연꽃노래
당초 선정기준 모호한 점도

전라북도 대표로 '옥구 들노래'와 '태인 연꽃노래'가 나란히 출전. 두 작품 모두 '농요(민요)'라는 동일 장르여서 전국 대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중북된 두 작품을 동시 선정한 심사위원회의 모호한 기준을 비판. 대회를 10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는 민간 전승자들의 연습 현장 기록.

1974년 11월 28일

농악은 한국특유의 민속

제1회 농악경연을 계기로 알아본다



농민의 토착 열과 멋을 지녀
삼국시대부터 전승된 무악
13개군 참가...보존전기를 마련
산간부는 좌도굿, 평야곳은 우도굿
인원은 대체로 30명으로 구성

전북신문사 주최 제1회 농악경연대회가 13개 군(郡) 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한국 특유의 민속 예술인 농악을 전승하고 보존하는 자리. 농악을 지리적 특성과 예술적 형태에 따라 산간부를 중심으로 발달한 역동적인 호남좌도(左道)굿과, 평야부를 중심으로 발달한 화려하고 정교한 호남우도(右道)굿으로 학술적으로 구분하여 비교·설명.

1974년 12월 3일

향토특색 유감없이 발휘

김제, 진안은 정도 연출

학생, 일반 구분 없는 것이 흠

국악경연 심사평



전북 13개 군에서 3백여 명이 참가해 좌도굿과 우도굿으로 나뉘어 치러진 이번 대회는, 전국 최초로 도(道) 단위에서 향토 민속예술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속예술 중흥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일반부와 학생부를 나누지 않아 심사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쉽다는 평가 내용

1974년 12월 7일

무용 대공연 갈채속 폐막

전북예술회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무용 대공연이 6일 전주 삼남극장에서 하루 4회에 걸쳐 화려하게 개최되었고 한국무용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최선)의 주관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인 한영숙 씨를 비롯해 전국 및 전북을 대표하는 전통 무용가 14명이 대거 출연했다는 내용



1975년 「전북일보」 국악기사

월일	기사제목
1.1	전북지방 기속을 찾아<1> 지신밟기
1.7	고향개발 등에 46억원 투입
1.8	9일 위안 잔치 KBS 문화관서
1.9	전북지방 기속을 찾아: 지신밟기
2.18	판소리 공연 박초월여사 운봉서
3.7	여학생으로 농악대 창설
3.8	전북인맥: 고창지방
3.17	임춘앵씨 별세
3.25	박동진 판소리 연창회
3.26	시조경향대회

4.14, 17,19,24,26 ,28	국립창극단 초청 배비장전 공연
4.15	「두견각」공연에 갈채
4.17	이조 서민문학의 대표작
4.26, 29	본보 연재소설 배비장전 창극화 / 창극 배비장전 <3부 9장>
4.30	창극 배비장전 공연
4.30	배비장전 공연 성황
5.2	공신력없는 한전
5.8	전주 천중놀이
5.15	보람있는 행사 되게: 춘향제 행사에 대한 좌담회
5.19	남원골에 10만 인파 몰려
5.20	1등 성창순씨 전국 명창대회
6.12	고향에 축제 술렁
6.17	백만인의 강좌
6.17	생동감있게 호흡일치
6.19	전통예술 계승보전
6.26	신도들에 깊은감명 안겨
8.2	김제 쌍용놀이 출전
9.11	전주대사습놀이
9.11	서울서 펼친 벽골제 애뜻한 전설
9.16	쌍용놀이 우수상
9.23	대사습대회 개막
10.2	전승의 열 기러 푸짐한 잔치
10.7	익산농요회서 발굴된 도의가
10.30	한국적 슬기는 노래와 춤
11.7	흥겨운 가락 .. 펼친 묘기
11.8	노인들 고독 덜어주자
11.8	농악경연대회 1등은 나포면
11.18	제2회 전북 농악경연대회 결산
12.23	시집가는 날 등 갈채

1975년 전북일보에 실린 국악 관련 기사는 총 45건으로, 기사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늘어났다. 주요 기사로는 전북일보 주관으로 진행된 “국립창극단 초청 배비장 전 공연”에 대한 홍보 기사로, 4월 14, 17, 19, 24, 26, 28, 29, 30일에 걸쳐 총 8차례 기사가 실렸다. 공연은 전주(4월 29일)와 이리(4월 30일)에서 두 차례 열렸는데, 4월 30일에는 전주 공연이 성황을 이루었다는 기사, 5월 2일에는 4월 30일에 있었던 이리 시공관에서 공연에서 한전이리영업소가 승압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사까지 포함하여, 이 공연 관련 기사가 총 10건에 달한다. 해당 공연 관련 기사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은 전북일보에서 주관한 공연이라는 점과 이 공연의 내용인 배비장전이 『전북일보』에 연재되었던 점, 그리고 전북 출신 박초월, 김소희를 비롯, 박동진, 박승희 등 명창들이 총 출동하였다는 점이 작용한 듯 하다.

또한 ‘지신밟기’, ‘고창(판소리)’, ‘익산 도의가’ 관련 기사는 국악에 대한 지식 전달에 기여하고 있고, ‘춘향제’, ‘풍남제’, ‘대사습’ 관련 기사들 및 박동진·박초월 등의 판소리 공연 기사도 다수 보인다.

1975년 1월 1일

전북지방 기속을 찾아<1> 지신밟기



잡귀신 몰아내고 협동심을 함의
보존 보호위한 기록조사 등 펴야
농민 대중오락으로 많은 인기

조상의 얼과 민족의 정기와 슬기가 담긴 풍속이 차츰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계승을 강조.

1975년 1월 7일

고향개발 등에 46억원 투입



지역 개발사업 크게 늘어
올해를 「비약 발전의 해」로
각 분야별 균형있는 성장도모
작가기금에만 5천만원 지원

전북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을 보여주는 기사. 당시 전북도는 현대화 과정에서 소외되던 판소리와 향토 민속예술을 지역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금 지원과 체계적인 발굴 사업을 시작했다는 내용

1975년 1월 8일

9일 위안 잔치

KBS 문화관서



전주방송국은 9일 하오2시 전주시민문화관에서 새마을지도자 위안잔치를 무료로 공개. 3부에서 국악의 향연으로 명창들이 출연. 우리의 옛 가락을 들려준다.

1975년 1월 9일

전북지방 기속을 찾아: 지신밟기

세시민속..정초놀이로 큰 인기

장수지역은 즉흥적 자연물 토대로 가사형성



전북 장수 지역의 세시풍속과 향토 음악을 기록한 기사.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마을 주민들이 농악과 지신밟기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북 지역 민속 음악이 지닌 즉흥성과 자연스러운 신명이라는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는 내용

1975년 2월 18일

판소리 공연

박초월여사 운봉서



인간문화제 박초월여사와 그 문하생 15명은 20일 박여사의 고향인 남원 운봉에서 민민위문 판소리 공연을 갖는다.

1975년 3월 7일

여학생으로 농악대 창설



설천중, 지역사회 총화다지게

사라져가는 민속의 얼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총화를 이룩하기 위해 설천중에서는 40여 명으로 구성된 여학생 농악대를 창설하였다.

1975년 3월 8일

전북인맥: 고창지방

조상의 얼..그 현장을 찾는다

판소리집대성 서민문학승화

화려한 현대국악인 배출/ 인촌주의 뒤따른 수당사업관

현대 국악의 뿌리, 고창 판소리와 신재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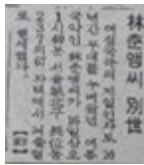


전북 고창이 낳은 판소리 이론가 동리 신재효 선생과 그 맥을 잇는 판소리 인맥을 다룬. 판소리를 단순한 소리 예술이 아닌 '서민 문학의 최고봉'이자 '화려한 현대 국악의 산실'로 평가하며, 전북 지역이 대한민국 국악의 중심지임을 강조

1975년 3월 17일

임춘앵씨 별세

여성국극의 제일인자로 20년간 무대를 누벼왔던 여류국악인 임춘앵씨가 16일 상오 1시 40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자택에서 뇌출혈로 별세.



1975년 3월 25일

박동진 판소리 연창회

전주 YMCA주최 / 27일 시민문화관

선생의 판소리 인도교 연창회



당대 최고의 국악 명창인 박동진 선생의 전주 초청 공연 소식을 담고 있다. 당시 전북 지역이 판소리의 명맥을 잇고 대중에게 우리 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처럼 명창을 직접 초청하는 대규모 국악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최했음을 보여주는 기사

1975년 3월 26일

시조경창대회

제2회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가 정읍정악원과 대한시우회 정읍군지회 주최로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정읍정악원에서 열린다.



1975년 4월 15일

「두견각」 공연에 갈채

전북의 국악예술인이 총출연하는 국악 대공연이 13일 하오 1시 30분과 7시 30분 전주시민문화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전북지부 주최로 베풀어짐.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모았고, 명창 오정숙씨와 이일주씨가 특별 찬조 출연.



1975년 4월 17일

국립창극단 초청 배비장전 공연

전주(29일) 코리아극장

이리(30일) 시공관

전북출신 인간문화재급 총출연

4월 29일과 30일 배비장전 공연

이 고장 출신 박초월, 김소희씨를 비롯, 박동진, 박승희씨 등 국내 유명 국악인이 총동원.



1975년 4월 17일

이조 서민문학의 대표작

이진순연출 「배비장전」 줄거리

풍부한 해학과 풍자로 관객매료

판소리 본고장서 정도연출

출연자의 얼굴

박동진, 김소희, 박초월, 박귀희, 조상연 등



국립창극단 제22회 공연작품인 배비장전이 전주와 이리에서 29일과 30일 개최. 해학과 풍자로 엮어진 서민대중작품.

1975년 4월 19일 / 4월 24일 /

4월 26일 / 4월 28일

국립창극단 초청 배비장전 공연

전주(29일) 코리아극장

이리(30일) 시공관

전북출신 인간문화재급 총출연

4월 29일과 30일 배비장전 공연

이 고장 출신 박초월, 김소희씨를 비롯, 박동진, 박승희씨 등 국내 유명 국악인이 총동원.



1975년 4월 26일 / 4월 29일

본보 연재소설 배비장전 창극화 / 창극 배비장전

<3부 9장>

국립창극단 제22회 공연 초청



전북출신 인간문화재급 총출연

박동진, 박초월, 김소희, 박귀희, 조상현, 김동애, 박후성

주최: 전북일보사, 국립극장

1975년 4월 30일

창극 배비장전 공연

오늘 이리 시공관서



낮3시, 밤7시 30분 2회

1975년 4월 30일

배비장전 공연 성황

오늘은 이리 시공관서



본사가 주최한 창극 배비장전 공연이 29일 전주코리아 극장에서 성황리 막을 내렸다. 국립창극단의 배비장전은 시종 풍자적으로 엮어져 흥미진진하게 관람할 수 있었고, 인간문화재를 비롯, 국창들의 풍부하면서도 의욕적인 연기는 만장한 관객의 박수를 한 몸에 받았다.

1975년 5월 2일

공신력없는 한전

승압계약하고 환원 능력부러

음주 경찰관 공연자와 시비도 / 창극단공연



30일 한전이리영업소는 1일간 이리시공관에서 있는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공연에 앞서 국립극장단 측과 10Kw의 용량을 30Kw로 승압시켜주기로 계약했으나 이를 마무리하지 않아 말썽을 빚었다.

1975년 5월 8일

전주 천중놀이 / 향토 단오풍속 무용화에 큰 의미



전주천중놀이는 전주지역에서 단오날 행해졌던 풍속을 무용화한 것으로, 해마다 단오날 베푸는 시민의 날에 단오절맞이 민속 행사를 무용으로 축소하여 단오놀이의 옛 모습을 되살리도록 했다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75년 5월 15일

보람있는 행사 되게: 춘향제 행사에 대한 좌담회

판소리 본고장 전북대회로 부각

명창대회 신인발굴 돼야

많은사람 참가도 아쉬워



참가자: 김기수, 성경린, 박록주, 양해준, 김종길, 강한영, 최용호, 이태백

음력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남원에서 대춘향제전이 열린다. 이 춘향제 전행사의 하나로 전국명창대회가 금년들어 두 번째 열리게 되는데, 판소리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만원에서 명창대회를 갖는대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방 행사로서는 제일 큰 규모이며 처음 시도된 명창대회이므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국악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다 발전적이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도록 국악계의 원로들과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1975년 5월 19일

남원골에 10만 인파 몰려

춘향에 흥기정양

명창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석탄 첫 공휴일 춘향제도 겹쳐



춘향의 얼을 추모하고 고귀한 정신을 승화시켜 조상의 빛난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제45회 춘향제전이 17일 전야제로 막이 올랐다.

전야제, 춘향뿔기, 전국명창대회, 공술대회 개최

1975년 5월 20일

1등 성창순씨 전국 명창대회

춘향제 행사 중 명창대회에서 성창순씨가 기성인부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1975년 6월 12일

고향에 축제 술렁

내일 풍남제 전야제 화려한 개막

씨름, 그네, 활 쏘기 등

단오절 풍속도 푸짐히

16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벌여



단오절이자 전주시민의 날이기도한 14일 제17회 풍남제가 펼쳐진다. 전야제에서 농악대 공연, 본공연에서 농악잔치, 16일 하오 8시부터 국악의 밤이 열린다

1975년 6월 17일

백만인의 강좌

가야금 우륵이 처음 보급 / 풍류, 산조 두가지 종류



가야금은 신라 진흥왕 시절 가야나라 가실왕이 삼한시대 전래의 고를 새로 만들어 가얏고라 이름하고 악사 우륵으로 작곡하여 연주케 한 우리 고유의 뜯어타는 열두줄 고이다. 가야금의 유래, 기보법, 연주자세, 수법 등 가야금에 대해 소개

1975년 6월 17일

생동감있게 호흡일치

성황리에 끝낸 비사벌극회 풍남제 공연

연출, 캐스트 모두 의욕적 자세

가야금의 음악효과는 특기할 만



도내 최초 여성극단 「비사벌극회」가 풍남제행사의 일환으로 14일 하오 시민 문화관에서 2회의 창립공연을 가져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음악효과를 가야금과 아쟁을 동원, 직접 연주를 하여 생동감이 넘쳐흐르게 한 것은 큰 성과였다.

1975년 6월 19일

전통예술 계승보전

전주대사습놀이 부활추진위 구성

대사습놀이란 마상궁술대회, 전주 특유물놀이, 판소리 백일장

판소리 등 6종목 명인등용문되게 8월 개최



전주대사습놀이의 부활을 위한 전주대사습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이조때부터 거행됐던 민속무예놀이를 재현, 국악의 발상지답게 민속예술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목적. 민족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보존하여 민족주체성을 확립.

1975년 6월 26일

신도들에 깊은감명 안겨

성서판소리공연 큰 성과

23일밤 8시 전주시민문화관에서 박동진 성서판소리 공연. 「팔려간 요셉」과 「예수의 고난」을 2시간여 고수 강종철씨의 장고와 곁들여 불러 신도들에게 감명과 공감을 안겨줬다.



1975년 8월 2일

김제 쌍용놀이 출전

민속경연에 전북대표로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문화공보부와 예총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 전북도는 김제군 벽골제 쌍용놀이를 대표로 지정. 김제군은 자랑스러운 향토문화의 보존 발전과 군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이 출연에 총 집중키로 하고 출연팀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하기로 함.

1975년 9월 11일

전주대사습놀이

거국적 후원으로 (9월 21~22일) 개최

국내최고의 명창 명인의 등용문

서민예술의 진로..80년만에 부활

종합경기장등 3개 곳서

4개 경연종목: 시조, 무용, 판소리, 농악



1975년 9월 11일

서울서 펼친 벽골제 애뜻한 전설

민속제서 쌍용놀이 갈채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한 김제의 벽골제 쌍용놀이가 개막 첫날인 13일 서울운동장에서 선을 보였다. 전북이 내놓은 쌍용놀이는 1백 30명이 출연, 도작 문화의 요람지인 벽골제의 애뜻한 전설을 공개.

1975년 9월 16일

쌍용놀이 우수상

문공부 장관상 차지

16회 민속경연대회 폐막



15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폐막한 제16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전북의 김제 벽골제 쌍용놀이는 전남 등 5개팀과 공동으로 우수상인 문화공보부장관상을 받았다.

1975년 9월 23일

대사습대회 개막

판소리 장원 오정숙씨



2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베풀어졌던 제1회 전국대사습대회가 22일 하오 7시 30분 광주농고의 농악경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판소리, 농악, 시조, 무용 4개 종목에 걸쳐 숨씨를 겨루었던 사습대회는 시민들을 한껏 들뜨게 했다.

1975년 10월 2일

전송의 일 기려 푸짐한 잔치

문화의달 10월 지방축제 일정

고창선 모양성제

향토문화 모두 19개

백제문화제도



다양한 지방 축제일정 홍보

1975년 10월 7일

익산농요회서 발굴된 도의가

다듬이질하며 흥얼거려

마한민속제에서 처음으로 공개

한국 민요록엔 수록 안돼

나무하러간 남편을 그려



마한민속제에서 국내최초로 선보인 도의가는 우리나라 민요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시. 다듬이질을 둘러싼 부녀자들의 노래로, 임동권씨의 『한국 의 민요집성』에도 수록되지 않은 곡.

1975년 10월 30일

한국적 슬기는 노래와 춤

위기극복의 예술적양태
악의 세력에 굳건히 대항
종교적으로 승화한 영고제
산대, 탈춤도 민중들의 예지
처용, 유머로 극한극복
화랑은 향가로 위 물리쳐



우리 민족사는 외세침략의 반복. 그러나 수만의 외세의 침범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해 자기를 상실한 일 없이 단일민족사를 형성. 이 슬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1975년 11월 7일

흥겨운 가락 .. 펼친 묘기

시도서 18개 농악대 참가
2회 경연대회 우승 전주 준우승 익산



전북도주체 제2회 도내 농악 경연대회가 16일 전주공고운동장에서 개최. 정읍을 제외한 15개 시군 대표팀을 비롯, 학생부 3개팀 등 참가.

1975년 11월 8일

노인들 고독 덜어주자

전북대생 경로위안회 등 열어



전북대 학도호국단이 「새마을경로위안회」를 8일 정오 교양과정부 앞 잔디밭에서 베풀었다. 오후에는 전주농고의 농악놀이 공연도 있었음.

1975년 11월 8일

농악경연대회 1등은 나포면

옥과군은 제2회 농악경연대회를 6일 상오 10시부터 대야국민교정에서 10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가졌다.



1975년 11월 18일

제2회 전북 농악경연대회 결산

월등히 높아진 수준
새마을 부락단위 참가 등
정규편성 특색
노인과 학생 중간층 마련을



농도인 전북은 풍년을 빌고, 자축하는 농악이 그 형태도 다양하게 존재. 2회 대회에서는 일반과 학생팀이 구분되어 진행. 농악대의 정규 편성도 특징. 이에 따라 율동과 음의 조화가 가능해지고 수준이 높아짐.

1975년 12월 23일

시집가는 날 등 갈채

최선문화생 무용발표



최선문화생 무용발표회가 21일 하오 3시와 8시 전주시민문화관에서 베풀어졌다. 제1부 궁중무용과 살풀이 등, 제2부 서낭당굿과 장고춤 등.

1976년 「전북일보」 국악기사

박준희(예술경영 25)

월일	기사제목
5.7	2회째 맞는 대서습대회
6.2	18회 풍남제 덕진에 20만인파 봄벼
6.3	18회 풍남제 화보
7.10	정상급 국악인을 통한 디스크 출판
8.7	한국민속무용단 '로스앤젤레스' 공연
8.7	구경하기 힘들어진 민속악

9.20	「금마 기세배」 맹연습
10.12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앞두고 마지막 숨쉴 다듬어
10.20	판소리 증시조 신재효 선생 유적 복원 서둘러
10.20	모양성제
10.30	판소리 관심 많아 기빠
11.18	21개 팀 열띤 경연
12.21	76 전북 문화 결산 <상>

1976년 『전북일보』에 수록된 국악 기사는 총 13건이다. 기사의 내용은 대사습놀이와 농악, 판소리, 전통 축제 및 민속 무용 등 다양한 국악 행사와 전통 예술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판소리 유적 및 신재효 선생 생가 복원 논란, 국악인들의 음반 출판과 인터뷰, 지방 민속악의 전승 애로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전북 지역에서 국악 공연과 경연대회가 활발하게 개최되었으며, 전통 예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1976년은 전통 국악의 보존과 계승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라고 볼 수 있다.

1976년 5월 27일

2회째 맞는 대사습대회

판소리 유적으로 보존될 가치 충분

유기룡 <판소리음악학회 대표>



제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다루며 그 문화적 가치 조명. 판소리, 농악, 시조 등 다양한 종목에 전국의 국악인들이 참여해 호남 풍류의 정수를 선보이는 장이 됨. 판소리음악학회 대표 유기룡 씨는 기고를 통해 일제의 탄압으로 소멸 위기에 처했던 판소리가 시민들의 성원 속에 부활한 역사적 의미 강조. 대회의 권위와 원형 보존을 위해 심사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전주를 판소리 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976년 6월 2일

18회 풍남제 덕진에 20만인과 봄버

전야제 이어 화려한 시가행진

그네뛰고 창포물에 머리감는 단오절

대사습 · 가요잔치 · 단오굿등 푸짐한 행사



제18회 풍남제가 종합경기장에서 막을 올림. 전주 시내 전역에 20만여 명의 인파. 전날 열린 화려한 전야제 마스게임과 가상 행렬에 이어, 단오 당일에는 고교생들의 취타대와 군악대를 선두로 한 대규모 시가행진.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전주대사습놀이 대회를 비롯해 창포물 머리감기, 그네뛰기, 단오굿, 가요잔치 등 다채롭고 푸짐한 전통 문화 행사들이 3일간 이어짐.

1976년 6월 3일

18회 풍남제 화보

민속놀이·단오굿 식영여고 1천여 명이 뺨곡

새마을가장행렬 · 부녀그룹·단체 · 노인당·자생조직 3백여 명이 펼친 새마을 행렬.

제18회 풍남제의 다채로운 현장 모습을 화보와 함께 전하고 있다.



1976년 7월 10일

정상급 국악인을 통한 디스크 출판

오아시스 레코드사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국내 정상급 국악인들이 참여한 판소리 및 민속악 음반 6종을 발매. 인간문화재 박동진의 '적벽가', 신쾌동의 '거문고 산조 및 병창', 박초월의 '춘향전', 이은관의 '배뱅이굿', 대사습 대통령 특상 수상자 조상현의 '심청가', 성창순의 '홍보가' 등이 수록.

1976년 8월 7일

한국민속무용단 '로스엔젤레스' 공연

1천 7백여 관중 매료시킨 우리의 승무



대한민국 민속무용단이 지난 4일 미국 LA의 한 대형 강당에서 문화예술 공연. 이날 공연에는 현지 관중과 교민 1,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용단은 승무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 민속무용을 선보임.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즐겼다.

1976년 8월 7일

구경하기 힘들어진 민속악

1종 음식점 모두 2종으로



남원 시내의 1종 유흥업소(요정) 5개소가 세금 문제로 가무가 금지된 2종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이로 인해 남원의 명물 국악 공연 보기 어려워져 관광 차질 우려. 영세한 지방 요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흥세법을 개선해야.

1976년 9월 20일

「금마 기세배」 맹연습

민속경연 출전 앞두고



익산 금마삼북중학교에서 제17회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을 앞둔 '금마 기세배' 팀이 맹연습. 익산군 금마면 도천, 용순, 갈산마을 등에서 1백여 명의 주민들이 출연하여 농기와 농악으로 옛 정취를 자아냄. 전북대 이강오, 오령 교수의 고증과 지도 아래 대회 출전을 위한 심혈.

1976년 10월 12일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앞두고 마지막 숨씨 다듬어

금마기세배 · 삼계농요

농기 들고 힘과 기교 자랑, 물품기 등 농촌 평화 담아



제17회 전국민속경연대회를 앞두고 익산군의 '금마 기세배'와 임실군의 '삼계 농요' 팀이 연습에 총력. 금마 기세배는 풍물놀이와 농악으로 대회의 성과를 겨냥. 임실 삼계농요는 영농기와 농악 가락을 통해 농촌의 평화로운 옛 정취 재현.

1976년 10월 20일

판소리 중시조 신재효 선생 유적 복원 서둘러

전국 국악인들 앞장, 생가 등 문화유산 찾아 보존 따른 계획도 세워



신재효 선생의 유물과 유적 복원을 위해 국악인들과 고창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음. 고창읍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선생의 생가가 경찰서 판사로 사용되며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적. 한국문화재위원 강한영 교수와 전국 국악인들은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생가와 유적을 복원하기 위한 범국민적 기구 설치 및 구체적인 보존 계획 수립을 당국에 촉구.

1976년 10월 20일

모양성제

「담성놀이」 줄 잇고 축등행렬 장관 이뤄



고창 고유 향토문화 전통과 예술을 계승하는 제7회 모양성제가 모양성 광장에서 화려하게 거행. 봉화놀이와 축등성 시가행진에 이어, 본행사에서는 농민들의 줄다리기와 삼현육각의 노래가락이 흥을 돋움. 고창고등 여고생들의 노래와 국창 신영희씨의 판소리 '홍보가' 공연이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음.

1976년 10월 30일

판소리 관심 많아 기뻐

후진 위해 무대 자주 안 설 터

국창 김소희 여사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쁘지만 젊은 층의 이해 부족은 안타까움. 판소리는 완성에 오랜 세월이 걸려 국가적 보급과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지정 후계자가 2명뿐인 애로가 있음. 후진들을 위해 앞으로 무대 출연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표명.

1976년 11월 18일

21개 팀 열띤 경연

3회 농악대회



제3회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가 18일 오전 10시 전주시 체육관에서 화려하게 개막. 김제 농악팀을 비롯해 16개 시·군 대표팀과 전주 지역 등 5개 학생팀을 포함한 총 21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 본 대회에서 입상한 일반팀 3개 팀과 학생팀 2개 팀은 19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새마을 풍년제에서 다시 한번 경연을 갖기로 함.

1976년 12월 21일

76 전북 문화 결산 <상>

예총 두드러진 활동없이 미전 풍작으로 명맥유지

예산없어 타행사 빌붙고 「全北文學」 지만 계속 출간



1976년 한 해 동안 전북 지역의 문화 활동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타 행사에 얹혀 치러지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상을 보임. 무용과 국악 등 각 예술 분야의 조직력과 활동 능력에서 심한 격차를 드러냈으며, 대부분의 분과가 연간 계획했던 행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 전북미술대전이 풍작을 이루며 명맥을 유지했고, 무용 분야에서는 산타령 속에 춤이 올라서며 관객들에게 막을 내린 무대가 자극을 줌.

1977년 「전북일보」 국악기사

송준석(예술경영 24)

월일	기사제목
2.26	원형 보존대책 시급 전북 농악 등 문화재 지정돼야
4.12	호남 전통농악에 찬사
4.16	선보일 창극「대춘향전」
5.10	봉산탈춤 해외서 인기
6.4	우리겨레의 영원한 향기
6.25	예산없어 명맥만 유지,
7.26	연극 곁들인 종합음악
7.26	무용보존에 돌파구
12.3	판소리 유파 발표회 성황
12.29	잊혀져가는 민족의 숨결 재현

1977년 『전북일보』에 수록된 국악기사는 총 10건이다. 전통음악, 무형문화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77년도의 전통음악과 무형문화재는 전승이 잘 이어지지 않고 보존이 잘 되어있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다분했으며,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예산을 늘려 전통음악과 문화재의 명맥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전한다. 보존과 전승이 아쉽다는 우려와 달리 해외에서는 동양무용, 그중에서도 봉산탈춤이 인기를 끄는가 하면, 더 나아가 77년도에는 기존의 창극과는 달리 이동형 공연이나, 최초로 봉산탈춤의 무서를 출판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들 역시 기사화 되었다. 정리하면 77년도는 사람들이 전통음악과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변화를 시도하는 해라고 볼 수 있다.

1977년 2월 26일

원형 보존대책 시급 전북 농악 등 문화재 지정돼야

아쉬운 민속전승



"전라도 무당신굿" "한지" "합죽선" 등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종목들이 방치되어 전승되지 못하고 퇴색.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이 심사를 하러 왔으나, "개인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뛰어나지만 의상이나 농악기의 전통성을 살리지 못한점이 아쉬우며, 기능보유자들이 거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전승받을 후계자들의 육성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전함.

1977년 4월 12일

호남 전통농악에 찬사

서울서 우도굿 발표회 성황

정통,고귀성과시 전북서 10명 정선출연

누구나 흥겹게 무용도

개발 전승 아쉬워



호남농악 우도굿의 발표회가 전통무용연구회와 한국민속연구소가 주최 하에 9일 오후 서울 장충동의 국립극장 안의 국악고등학교에서 열림. 왜정 식민하에 농민들이 징병되고 농악기들이 공출 당하며 쇠퇴 후에 복원되지 않아 계승이 단절된 농악이었으나, 2년 전부터 전북에서 시군대향 농악대회를 열게 되면서부터 다시 빛을 보기 시작.

1977년 4월 16일

선보일 창극 「대춘향전」

24일 민속촌서 야외공연



오는 24일 우리나라 연극무대로는 처음으로 관객이 직접 이동하며 실제무대를 관람하는 창극 대춘향전을 민속촌에서 진행. KBS가 주최하며 민속촌의 관위(官衛)개관을 기획. 소설과는 달리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춘향전에서도 흥미로운 진수만을 재구성하여 8장의 야외무대를 옮겨가며 창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줌.

1977년 5월 10일

봉산탈춤 해외서 인기

관객들 진지하게 공부하는 태도

NYT 토속희극성 높이 평가



결직한 대사와 인간적인 흥미, 예술성과 원색의 의상 등이 조화를 이루는 봉산탈춤을 “이것이 바로 연극이다.” 라고 뉴욕타임즈가 전함. 3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뉴욕에서부터 하와이 까지 20개 지역에서 35회의 공연과 시범강의를 마친 봉산탈춤해외공연단이 5일에 귀국. 이어 7월 7일에는 벨기에, 뒤이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을 순회공연 할 예정. 대부분 아시아의 연극과 달리 8과장을 전달 하는데 느린동작이 없고 대사, 음악, 춤도 있으나 토속적인 희극성이 가면을 통해 나타난다고 평가.

1977년 6월 4일

우리겨레의 영원한 향기

제 47 회 춘향제 행사를 마치고

주로 국악부문을 중심으로 최용호



춘향제 행사를 마치고 판소리에 관해 평가한 기사. 판소리 유파의 흐름인 ‘법통’은 꼭 지켜져야 할 무형적 법칙. 동편제는 고단하고 서편제는 기교가 화려하며, 동편제는 동편제, 서편제는 서편제의 가락을 따라서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잡소리라 하여 알아주지 않음. 춘향전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창의적인 연구와 개발을 꾸준히 하여 보다 고전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함.

1977년 6월 25일

예산없어 명맥만 유지,

풍납제서 빠져나와 독자예술성 지향해야, 대회 앞두고 이사장 사표 소동도



제3회 전국 대사습놀이가 예산 부족과 고문 추대 등 여러 문제. 전국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군산, 임실 등에서 참가. 전국대회가 풍납제에 끼어있지 않고 가을에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풍납제와 대사습대회가 같은 성격을 띠지만 대사습대회는 서민의 날로써 예술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국악협회전북지부장은 "도나 전주시가 맡아야 한다" 라고 전하며, 농악, 기악, 무용, 궁도, 시조 등 6개 부문에 걸쳐 1천 9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얻어낼 수 없었다고 덧붙임.



1977년 7월 26일

연극 결들인 종합음악

무의적 신앙 떠나 발전
판소리의 배경과 그 특성
아니리와 발림의 묘
오페라의 새 방향 제시

판소리는 창자와 고수의 협동으로 구연되는 예술로 말과 노래를 교체하며 진행. 사실의 내용은 이야기이고, 구연할 때 보조동작이 수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의라는 신앙을 떠나 세속적 개작이 이루어져 민중의 사랑을 받게 바뀐 것. 판소리는 서양 오페라가 벽에 부딪혀 있을 때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음악학자들의 관심이 쏠림.

1977년 7월 26일

무용보존에 돌파구

김백봉교수 무보를 발간
국내 처음 시도
무서 형식 전과정 집대성
봉산탈춤 산고 3년 만에

국내 최초의 봉산탈춤 무보가 김백봉 교수에 의해 봉산탈춤 기능보유자인 이근성의 기본동작과 한국가면극보존회가 보존하고 있는 각 과정의 모든 춤사위를 무서 형식으로 출판.



1977년 12월 3일

판소리 유파 발표회 성황

인간문화재 전수생들 공연
명창계보·전통 보존의 현장
관객들 흥겨워 “좋다”연발

29일 2시부터 4시간 동안 한국문화예술평원강당에서 사단법인 판소리보존연구회의 제7회 판소리유파발표회 개최. 동편, 서편, 중고, 강산, 경, 석화, 반제의 7가지 유파 중 동편제에 비해 경쾌하고 미려한 성음의 경드름의 특성을 살려 좋은 자료를 제공한 발표회라고 평가. 인간문화재 8명 중 6명과 유일한 고수기능자로 지정된 김명환씨를 비롯한 호화 무대.



1977년 12월 29일

잊혀져가는 민족의 숨결 재현

시나위 77년도 정기발표회

24일 오후 민속악회 시나위는 77년도 정기발표회를 겸해 송년민속음악제를 문예진흥원강당에서 국악애호인들과 젊은 국악인들 200여명이 참석해 열었다.

